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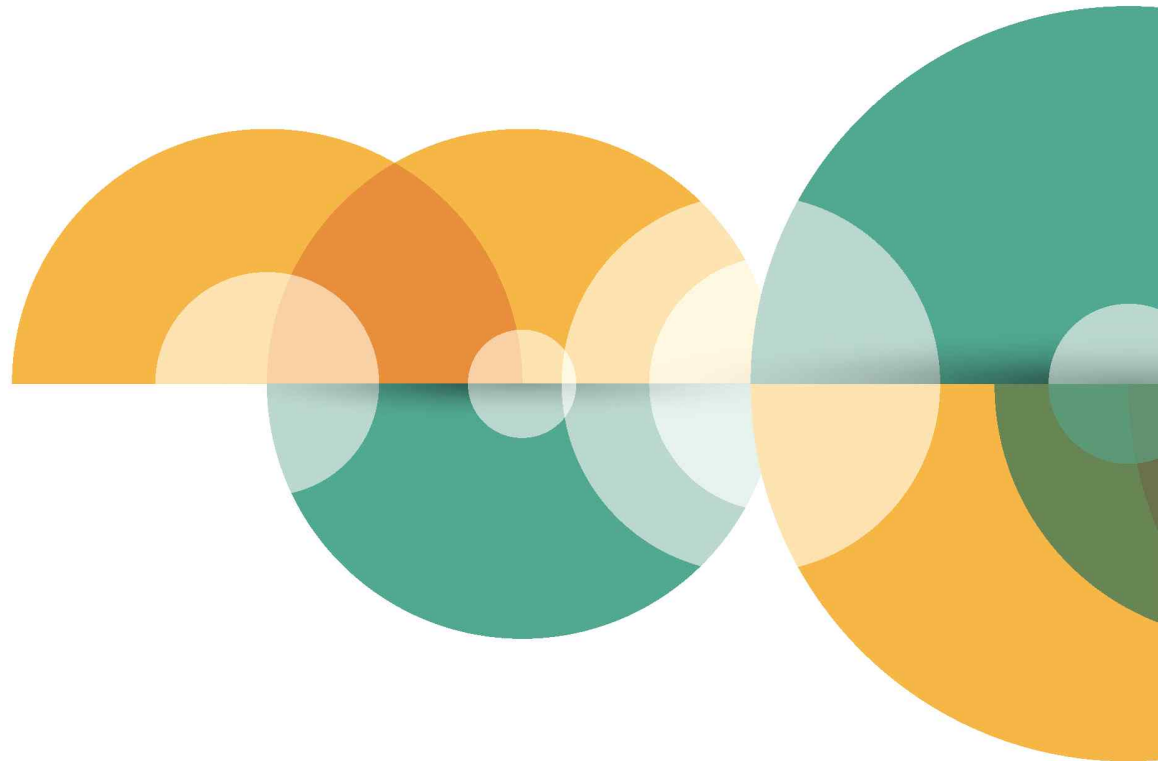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2022년도 중소기업 전망

책임작성 | 노민선 연구위원(02-707-9843, msnoh@kosi.re.kr)

김수현 선임연구원, 권재한 연구원

※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| 목 차

1. 서론
2. 중소기업 경기전망
3. 중소기업 경영전망
4. 시사점

| 요약

-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하였으나, 불확실성 증대
 - 경제성장률(%) : -0.9('20) → 1.9('21.1분기) → 6.0(2분기) → 4.0(3분기)
 - 물가 상승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경영활동의 리스크 증대
-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21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중소기업은 K자형 회복¹⁾에 따라 산업·규모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
 - 2022년도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며, 성장세가 주춤해질 전망
 - 경제성장률 전망(%) : 4.0('21^e) → 2.9('22^e)
 - 민간소비(%) : 3.2('21^e) → 3.8('22^e) / 상품수출(%) : 8.7('21^e) → 2.8('22^e)
 - 중소 제조업은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고, 중소 서비스업은 상승폭 확대
 - 중소 제조업 생산 증가율(%) : -4.3('20) → 1.9('21^e) → 2.1('22^e)
 - 중소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(%) : -3.7('20) → 3.5('21^e) → 5.2('22^e)
 - 중소기업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,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
 -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(%) : -0.2('20) → 16.3('21^e) → 4.3('22^e)
 - 중소기업 취업자 수(만명) : 2,423('20) → 2,444('21^e) → 2,462('22^e)

1) 경기회복 과정에서 업종, 규모, 계층 등에 따라 일부는 회복되지만, 일부는 침체가 지속되는 현상

■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2022년도 경영활동은 2021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전망이 우세

- 중소기업의 78.6%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응답
 - 중소기업의 64.0%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
- 2022년도 경영활동 전망은 2021년과 비슷하며, 부정적 전망이 우세
 - 매출액 : 감소(32.4%), 2021년과 비슷(46.4%), 증가(21.2%)
 - 영업이익 : 감소(32.1%), 2021년과 비슷(49.3%), 증가(18.6%)
 - 투자 : 감소(17.9%), 2021년과 비슷(73.5%), 증가(8.6%)
 - 고용 : 감소(13.8%), 2021년과 비슷(72.9%), 증가(13.3%)
- 중소기업은 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'판매원가 상승(59.0%)'과 '인력수급 곤란(35.0%)'을 제시함
 -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'대-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(38.8%)'와 '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(36.6%)'를 꼽았음

■ 본 보고서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과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제시

- [이슈1]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서비스 위축 가능성
⇒ (대응)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시그널을 명확히 할 필요,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내수진작 정책 지속 추진
- [이슈2] 각국 무역분쟁과 자국 증시주의 확산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
⇒ (대응)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 강화, 주요 소재·부품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, CPTPP 가입 등을 통한 교역시장 확대
- [이슈3] 금융지원 조치 종료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부담 가중
⇒ (대응) 고용 창출, R&D투자 증가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 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대출 프로그램 신설,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
- [이슈4] 생산원가 상승 및 인력난에 따른 제조업 부진 심화
⇒ (대응)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연동제 도입,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

1. 서론

■ 2021년 세계 경제는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V자 반등

- 2020년 역성장 후 백신접종 가속화*로 5%대의 경제성장 예상
 - * 백신접종률(1회 이상, %) : 0.8('21.1월말) → 54.5(11월말)
-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세계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
 -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(%) : 4.9(IMF), 4.2(Global Insights), 4.5(OECD)

〈표 1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

(단위: %)

구분	2020년(실적)	2021년(예상)	2022년(전망)
IMF('21.10)	-3.1	5.9	4.9
Global Insights('21.11)	-3.4	5.5	4.2
OECD('21.12)	-3.4	5.6	4.5

주 : ()는 전망시점

■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2021년 들어 3분기 연속 증가세

-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지속*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 회복
 - * 정부예산(조원) : 469.6('19) → 512.3('20) → 558.0('21)
- 수출은 주요국의 수요가 회복되며 큰 폭의 성장세 지속
 - * 누계 수출액('21.1~11월) : 5,83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

〈표 2〉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	
			1분기	2분기	3분기
경제성장률	2.2	-0.9	1.9	6.0	4.0
민간소비	2.1	-5.0	1.2	3.7	3.3
정부소비	6.4	5.0	2.3	5.3	6.5
상품수출	-1.1	-0.5	6.4	23.5	6.0

주 : 전년동기대비 증감률, 상품수출은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■ 중소기업 경영활동은 수출, 고용 등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는 반면, 제조업은 부진한 모습

- 수출은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 등의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
 - 중소기업 수출(1~11월 누계, 억달러) : 916('19) → 901('20) → 1,058('21)
- 경기 회복세와 일자리 지원정책 등으로 취업자 수는 상승세 전환
 - 중소기업 취업자(11월 기준, 만명) : 2,485('19) → 2,451('20) → 2,490('21)
- 서비스업은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나, 제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
 -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(1~10월 평균) : 106.2('19) → 102.5('20) → 105.6('21)
 -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(1~10월 평균) : 97.0('19) → 92.1('20) → 94.3('21)
 - * 중소기업 가동률(1~10월 평균, %) : 73.4('19) → 68.4('20) → 70.9('21)

■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물가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

- 석유, 1차 금속 등 수입 원재료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 확대
 - 국내공급물가지수(전년동월대비, %) : +8.8('21.6월) → +15.9(11월) [7.1%p ↑]
 - * 원재료수입물가(전년동월대비, %) : +47.4('21.6월) → +92.5(11월) [45.1%p ↑]
-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향후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
 - 기준금리(%) : 0.50('21.6월) → 1.00(11월) [0.50%p ↑]
 - 중소기업 대출금리(%) : 2.85('21.6월) → 3.14(10월) [0.29%p ↑]
-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신규확진자 수 급증으로 경제활동 재위축 우려
 - 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'우려변이'로 지정('21.11.26)
 - 신규확진자 수(명) : 53,421('21.10월) → 82,530(11월)

■ 본 보고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 분석과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2022년도 중소기업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-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,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

2. 중소기업 경기전망

가. 국내 경제

(1) 경제성장률

- 2022년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
 - 경제성장률은 2.9%,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은 각각 3.8%와 2.8%로 추정

〈표 3〉 2022년 국내 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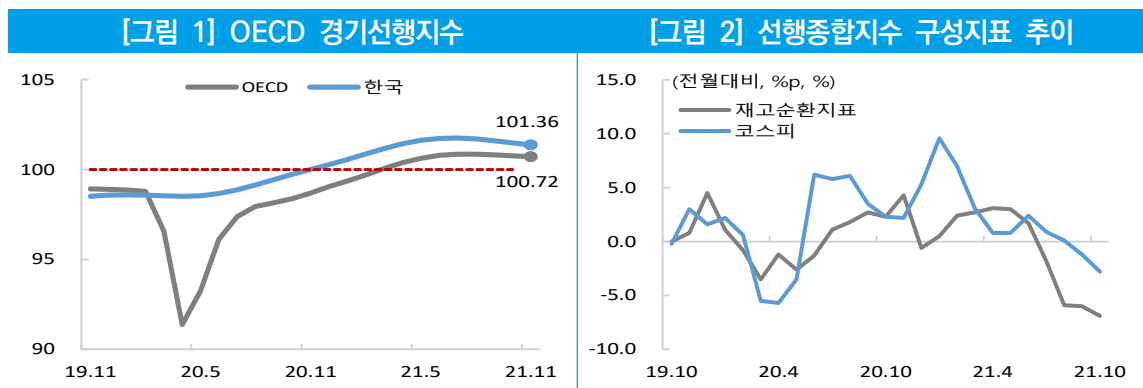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(예상)	2022(전망)
경제성장률	2.2	-0.9	4.0	2.9
민간소비	2.1	-5.0	3.2	3.8
상품수출	-1.1	-0.5	8.7	2.8

주 : 1) 2019년과 2020년은 한국은행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
 2) 상품수출은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기준

- 경기선행지수는 100을 상회하나,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

- OECD 경기선행지수²⁾ : 101.73(6월) → 101.36(11월) [0.37p ↓]
- 재고순환지표, 코스피 등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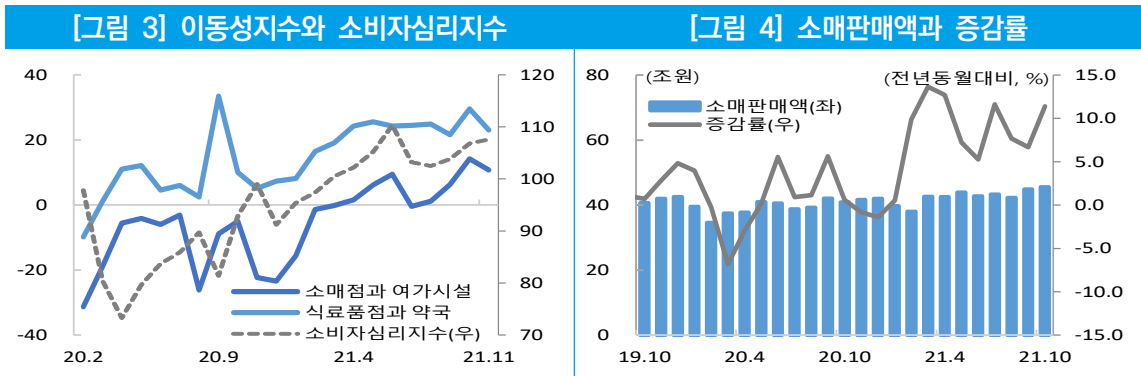
자료 : OECD

자료 : 통계청

2) 6~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로 100을 넘으면서 상승추세면 경기확장, 하락추세면 경기하강을 뜻하고, 100 이하에서 상승추세면 경기회복, 하락추세면 경기수축을 의미

■ 2022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, 불확실성이 큰 상황

- 소매점과 식료품점의 이동성 지수는 10월 중순 이후 두자릿 수 이상의 상승세
- 소매판매액은 45조원을 돌파하며 통계 집계(15.1월)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,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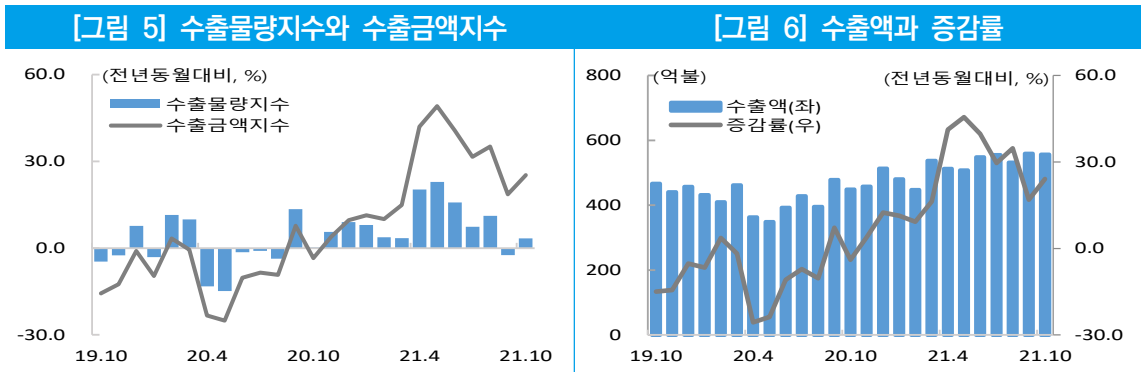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ur World in Data, 한국은행

자료 : 통계청

■ 2022년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, 글로벌 공급망 정체와 2021년도 기저 효과의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

- 두자릿 수 이상 성장했던 수출물량지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
 - * 수출물량지수 증감률(%) : +15.8(6월) → +3.4(10월) [12.4%p ↓]
-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2021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.0% 증가
 - * 수출액(11월, 억달러) : 4,575('20) → 6,041('21) [1,466(32.0%) ↑]



자료 : 한국은행

자료 : 관세청

(2) 일자리

■ 취업자 수는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경기 회복 기조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-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과 디지털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는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* 취업자 수(만명) : 2,712('19) → 2,690('20) → 2,725('21^e) → 2,753('22^e)

- 2020년 4.0%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3.7%를 유지할 전망

〈표 4〉 2022년 일자리 전망

(단위: 만명)

구분	2019	2020	2021(예상)	2022(전망)
취업자	2,712	2,690	2,725	2,753
실업률	3.8	4.0	3.7	3.7

주 : 2019년과 2020년은 통계청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기업연구원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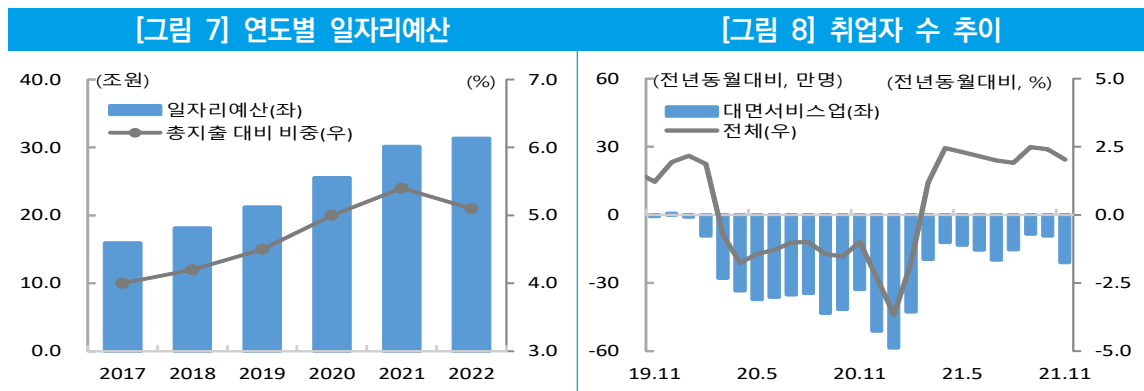
■ 일자리 예산이 확대되고, 대면서비스 관련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둔화

- 2022년 일자리 예산은 31.1조원으로 2021년 대비 1.0조원 증가

* 일자리 예산(조원) : 30.1('21) → 31.1('22) [1.0↑]

- 2021년 1월 이후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둔화

* 도소매,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(전년동월대비, 만명) : -59(1월) → -21(11월)



자료 : 고용노동부

자료 : 통계청

나. 중소기업

(1) 생산

■ (제조업)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화되며,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

- 2022년도 중소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
 - * 중소기업 생산지수(15=100) : 98.2(19) → 94.0(20) → 95.8(21^e) → 97.8(22^e)
-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은 대기업 대비 낮을 것으로 추정
 - * 2022년 제조업 생산 증가율 : 대기업 4.3% > 중소기업 2.1%

〈표 5〉 2022년 생산 증가율 전망(제조업)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		2022(전망)
			상반기	하반기(예상)	연간(예상)	
전체	0.5	-0.3	8.7	4.0	6.3	3.8
중소기업	-1.8	-4.3	4.3	-0.3	1.9	2.1
대기업	1.2	1.0	10.1	5.4	7.7	4.3

주 : 2019~2021년 상반기는 통계청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

■ (서비스업) 상승폭이 확대되나,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리스크 증대

- 2022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 - *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(15=100) : 107.8(19) → 103.8(20) → 107.4(21^e) → 113.0(22^e)
-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증가하나, 중소기업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추정
 - * 2022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: 중소기업 5.2% > 대기업 4.1%

〈표 6〉 2022년 생산 증가율 전망(서비스업)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		2022(전망)
			상반기	하반기(예상)	연간(예상)	
전체	1.4	-2.0	4.0	4.3	4.2	4.6
중소기업	1.9	-3.7	2.7	4.3	3.5	5.2
대기업	1.2	-0.2	5.7	4.8	5.2	4.1

주 : 2019~2021년 상반기는 통계청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

(2) 수출과 고용

■ (수출)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

- 2022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 - * 중소기업 수출액(억달러) : 1,007('20) → 1,171('21^e) → 1,222('22^e)
- 2021년 큰 폭의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증가폭은 둔화
 - * 2022년 수출 증가율 : 중소기업 4.3%[12.0%p ↓], 대기업 2.0%[26.5%p ↓]

〈표 7〉 2022년 수출 증가율 전망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		2022(전망)
			상반기	하반기(예상)	연간(예상)	
전체	-10.4	-5.5	26.0	26.1	26.1	2.4
중소기업	-4.1	-0.2	21.4	11.9	16.3	4.3
대기업	-11.7	-6.7	27.7	30.5	28.5	2.0

주 : 1) 2019~2021년 상반기는 관세청 통관기준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
 2) 대기업은 중견기업 및 기타 포함

■ (고용)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전망

- 2022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021년 대비 0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* 중소기업 취업자 수(만명) : 2,444('21^e) → 2,462('22^e) [18(0.7%) ↑]
- 전체 취업자 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%를 하회하며 줄어드는 추세
 - * 중소기업 취업자 수 비중(%) : 90.4('19) → 90.1('20) → 89.7('21^e) → 89.4('22^e)

〈표 8〉 2022년 취업자 수 전망

(단위: 만명)

구분	2019	2020	2021			2022(전망)
			상반기	하반기(예상)	연간(예상)	
전체	2,712	2,690	2,692	2,758	2,725	2,753
300인 미만	2,453	2,423	2,412	2,476	2,444	2,462
300인 이상	259	267	279	282	281	29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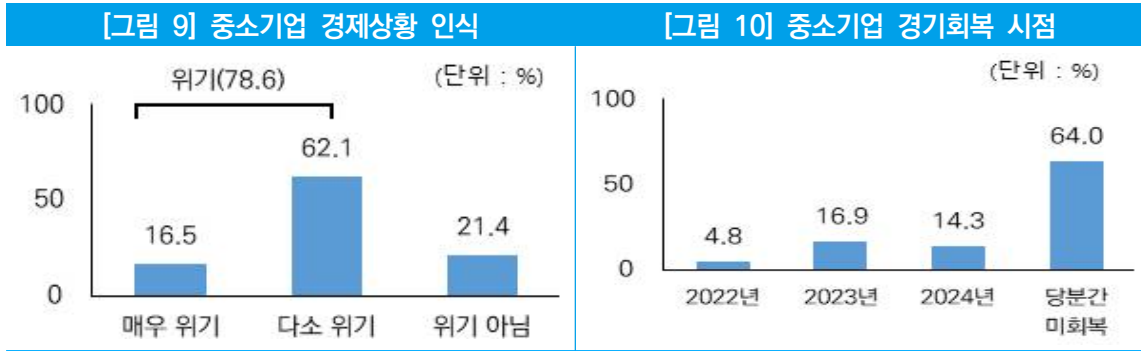
주 : 2019~2021년 상반기는 통계청 실적치, 2021년(예상)과 2022년(전망)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

3. 중소기업 경영전망³⁾

가. 경영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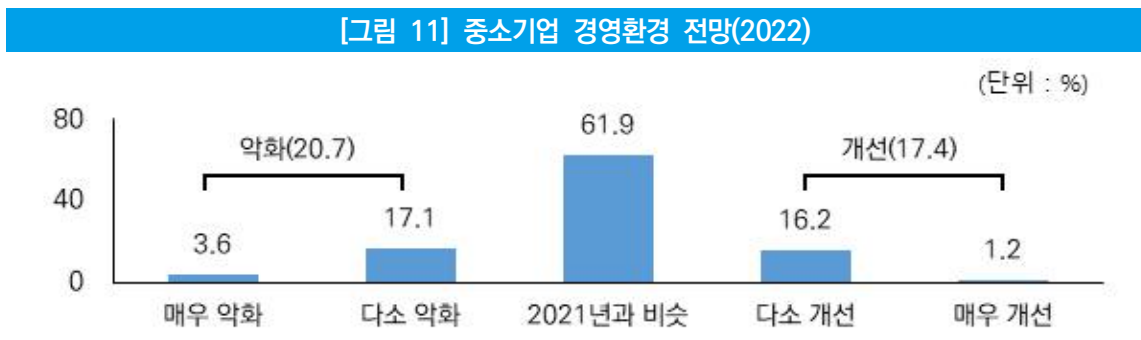
■ 경제상황 인식

- 중소기업의 78.6%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응답했으며, 위기가 아니라는 대답은 21.4%에 그쳤음
- 중소기업의 64.0%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
 - 2022년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4.8%에 불과했음



■ 경영환경

- 중소기업의 61.9%는 2022년도 경영환경을 2021년과 같이 위기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
 - 2021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.7%,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17.4%로 나타남



3) 2021. 12. 1(수) ~ 10(금)까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임 (95% 신뢰수준, 허용오차 ±4.07%p)

나. 경영활동 전망

(1) 2022년도

■ 매출액

- 중소기업의 46.4%는 2022년도 매출액이 202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32.4%는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함
 - 2021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1.2%에 그쳤음
- 2022년 매출액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.85점 수준
 - * 매우 감소(1), 다소 감소(2), 2021년과 비슷(3), 다소 증가(4), 매우 증가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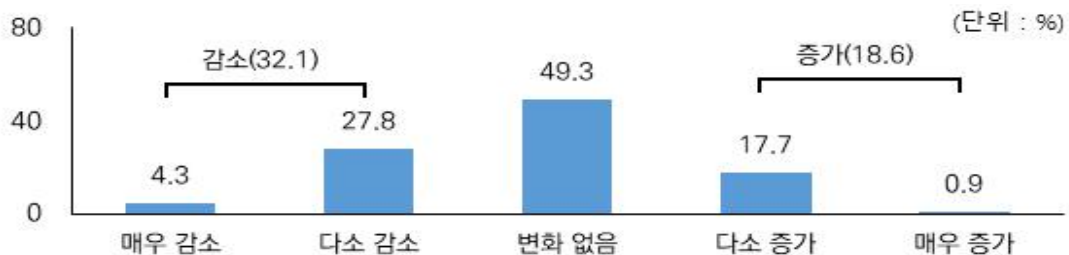
[그림 12] 중소기업 매출액 전망(2022)



■ 영업이익

- 중소기업의 49.3%는 2022년도 영업이익이 202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32.1%는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함
 - 2021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8.6%에 불과했음
- 2022년 영업이익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.83점 수준
 - * 매우 감소(1), 다소 감소(2), 2021년과 비슷(3), 다소 증가(4), 매우 증가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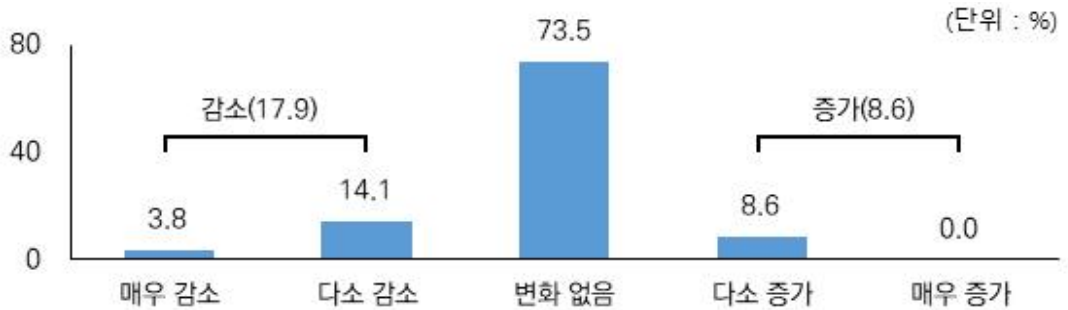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중소기업 영업이익 전망(2022)



■ 투자

- 중소기업의 73.5%는 2022년도 투자가 202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17.9%는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함
 - 2021년 대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8.6%에 그쳤음
- 2022년 투자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.87점 수준
 - * 매우 감소(1), 다소 감소(2), 2021년과 비슷(3), 다소 증가(4), 매우 증가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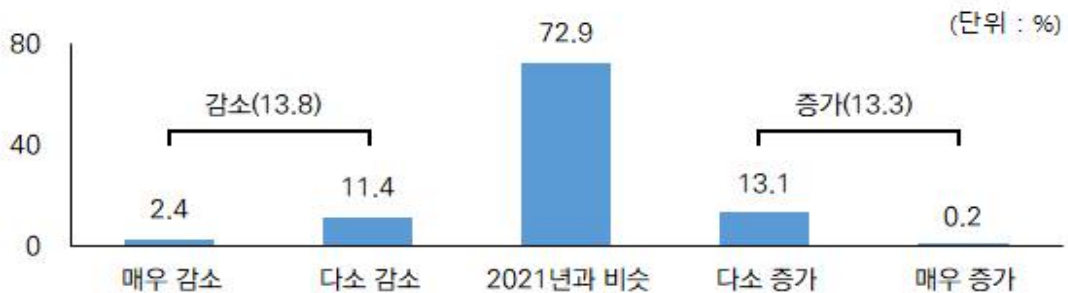
[그림 14] 중소기업 투자 전망(2022)



■ 고용

- 중소기업의 72.9%는 2022년도 고용이 202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13.8%는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함
 - 2021년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3.3%에 불과했음
- 2022년 고용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.97점 수준
 - * 매우 감소(1), 다소 감소(2), 2021년과 비슷(3), 다소 증가(4), 매우 증가(5)

[그림 15] 중소기업 고용 전망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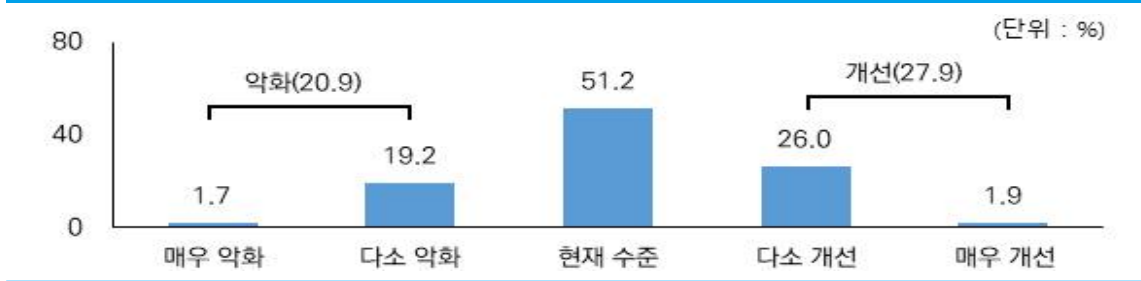


(2) 향후 5년간(2022~2026)

■ 경영실적

- 중소기업의 27.9%만이 향후 5년간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
 - 향후 5년간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51.2%, 2021년 수준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대답은 20.9%로 나타남
- 향후 5년간 경영실적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3.07점 수준
 - * 매우 악화(1), 다소 악화(2), 현재 수준(3), 다소 개선(4), 매우 개선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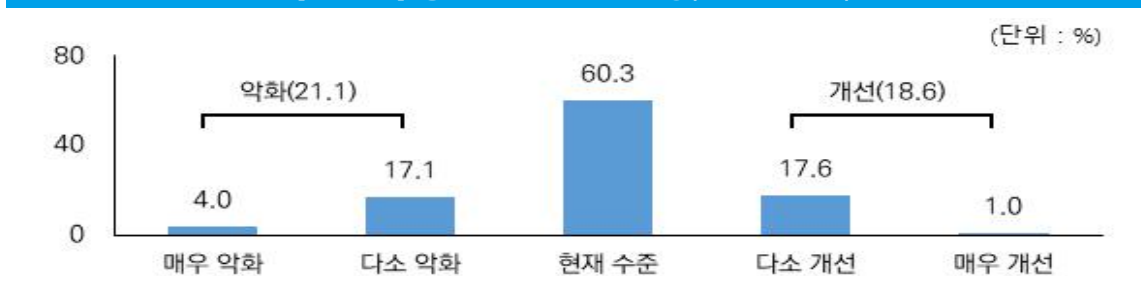
[그림 16] 중소기업 경영실적 전망(2022~2026)



■ 인력수급

- 중소기업의 18.6%만이 향후 5년간 인력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
 - 향후 5년간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60.3%, 2021년 수준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대답은 21.1%로 나타남
- 향후 5년간 경영실적 전망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2.95점 수준
 - * 매우 악화(1), 다소 악화(2), 현재 수준(3), 다소 개선(4), 매우 개선(5)

[그림 17]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망(2022~20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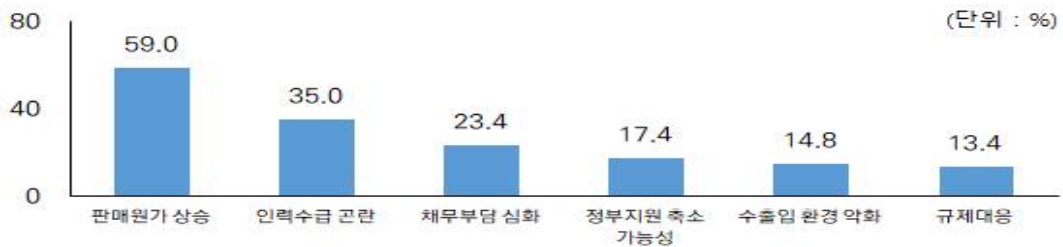


다. 경영계획

■ 우려사항

- 중소기업은 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‘판매원가 상승(59.0%)’과 ‘인력수급 곤란(35.0%)’을 제시함
 - 채무부담 심화(23.4%), 정부지원 축소 가능성(17.4%) 등의 순
- 2022년 경영계획 수립 시 ‘판매원가 상승’이 가장 우려된다는 응답 비중은 제조업(68.4%)이 비제조업(48.6%) 대비 높게 나타남

[그림 18] 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우려사항(복수응답)



■ 필요 정책

-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‘대-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(38.8%)’와 ‘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(36.6%)’를 꼽았음
 -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(32.2%), 신시장진출 및 사업전환(24.0%) 등의 순
- 제조업은 ‘대-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(41.4%)’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, 비제조업은 ‘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(38.4%)’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음

[그림 19]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정책(2022~2026)(복수응답)



4. 시사점

■ [이슈1]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서비스 위축 가능성

-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신규 확진자 수 급증
 - 신규 확진자 수(명) : 3,033('21.11.19) → 4,944(12.3) → 7,434(12.17)
 - 영업시간 제한, 방역패스 도입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('21.12.18~'22.1.2)
 - * 사적모임 4인까지(미접종자는 단독 이용), 유흥시설·식당·카페는 21시까지 운영
 - 음식점 등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타격 우려
 - * 음식점·주점업 판매액지수(전년동월대비) : -8.4%('21.7월,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)
 - 코로나19 재확산과 영업 제약에 따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 우려로 재정 투입이 줄어들 가능성
 - 소비자물가 증가율(전년동월대비, %) : 2.4('21.6월) → 3.7(11월) [1.3%p ↑]
- ⇒ (대응)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시그널을 명확히 할 필요,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내수진작 정책 지속 추진

■ [이슈2] 각국 무역분쟁과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

-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% 이상
 - 국가별 수출액 비중('21.1~11월 누계, %, 수출입무역통계) : 중국 25.3, 미국 14.9 등
 - 미국-중국, 중국-호주 등 각국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불가피
 -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 및 보호무역 강화로 국내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
 -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중간재의 글로벌 병목 현상 발생
 - *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요소 수급불안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 발생
 -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분업체계의 한계가 표면화되며, GVC 참여율 하락
 - 세계 GVC 참여율(% , 한국무역협회) : 59.3('18) → 52.0('20) [7.3%p ↓]
- ⇒ (대응)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 강화, 주요 소재·부품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, CPTPP* 가입 등을 통한 교역시장 확대
- *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

■ [이슈3] 금융지원 조치 종료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부담 가중

- 코로나19로 대출잔액은 급증한 반면, 금융지원으로 연체율은 최저 수준
 - 중소기업 대출잔액(11월 기준, 조원) : 721('19) → 887('21) [166(23.0%)↑]
 - 중소기업 연체율(10월 기준, %) : 0.58('19) → 0.32('21) [0.26%p↓]
 -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가 2022.3월 종료 예정
 -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신청기한 연장
 - * '20.4.1~'20.9.30(최초) → ~'21.3월말(1차) → ~'21.9월말(2차) → ~'22.3월말(3차)
 -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약 10%를 차지(금융위원회)
 -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
 - 기준금리(%) : 0.50('21.6월) → 1.00(11월) [0.50%p↑]
 - ※ 한국은행 총재는 '22.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('21.11.25)
- ⇒ (대응) 고용 창출, R&D투자 증가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 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대출 프로그램 신설,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

■ [이슈4] 생산원가 상승 및 인력난에 따른 제조업 부진 심화

- 중소 제조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되고 대기업과 비교시 양극화 뚜렷
 - 생산('21.1~10월, '19년 대비) : 중소기업 2.7%↓, 대기업 9.6%↑
 - 취업자 수('21.1~11월, '19년 대비) : 중소기업 0.3%↓, 대기업 8.5%↑
 - 원자재 공급망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과 물류난 등으로 생산원가 급등
 - * 중소기업의 판매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 비중 : 제조업(68.4%) > 비제조업(48.6%)
 - 원재료 국내공급물가지수(15=100, 11월) : 91.36('20) → 155.25('21) [69.9%↑]
 -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(11월) : 1,877('20) → 4,560('21) [142.9%↑]
 - 주 52시간제 시행과 플랫폼 시장으로의 인력 이동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
 - 5~49인 사업장의 52시간제 시행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로 생산인력 부족
 - 플랫폼 종사자('21)는 약 220만명, 전체 취업자의 8.5% 수준(고용부, '21.11.18)
- ⇒ (대응)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연동제 도입,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

참고자료

[국내 문헌]

고용노동부, 「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」, 보도자료(2021. 12. 15.).

관세청(2019~2021), 「수출입 현황」.

금융감독원(2019~2021), 「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」.

금융위원회,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실적 222조 관련」, 보도자료(2021. 9. 16.).

중소벤처기업부(2019~2021), 「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」.

중소벤처기업부(2019~2021), 「창업기업동향」.

중소기업중앙회(2019~2021), 「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」.

통계청(2019~2021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통계청(2019~2021), 「광업제조업동향조사」.

통계청(2019~2021). 「산업활동동향」.

통계청(2019~2021).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.

통계청(2019~2021). 「온라인쇼핑동향조사」.

한국은행(2021), 「2021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」.

한국은행(2019~2021), 「금융시장 가중평균금리」.

한국은행(2019~2021), 「금융시장 동향」.

한국은행(2019~2021). 「국민소득」.

한국은행(2019~2021). 「무역지수 및 교역조건」.

한국은행(2019~2021). 「소비자동향조사」.

한국무역협회(2021), 「한국형 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우리의 과제」.

[외국 문헌]

IMF(2021), *World Economic Outlook*.

OECD(2021), *OECD Economic Outlook, Volume 2021 Issue 2*.

[인터넷 자료]

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, 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ets/>(검색일: 2021. 12. 20).

IHS Markit, <https://ihsmarkit.com/research-analysis/global-economic-growth-inflation-will-slow-in-2022.html>(검색일: 2021. 12. 20)

OECD DATA, <https://data.oecd.org/leadind/composite-leading-indicator-cl.htm>(검색일: 2021. 12. 20)

Our World in Data, <https://ourworldindata.org/coronavirus>(검색일: 2021. 12. 20).
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오동윤

편집인 : 이동주

발행처 : 중소벤처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i.re.kr>

인쇄처 :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